

국토부 장관, “민생안정 · 국민안전 등 빈틈없이 관리”

- 9일 오전 실국장 회의 · 산하기관장 회의...국민 일상 회복 강조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.
-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1·2차관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·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.
- 이어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도로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.
-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“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며, “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동임을 명심하고,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”을 강조했다.
- 이어,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하며,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.
- 또한,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·배달·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.
- 아울러, “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면서,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- 특히, 1기 신도시 재정비, 뉴: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이어진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“각 기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,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”고 당부하며, “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- 이에,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“국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것”을 다짐하며,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.
- 먼저,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“현재 진행 중인 철도과업에 대해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“공공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또한,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“관문 공항으로서 여객과 화물 수송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고,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“연말 개통이 예정된 노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박 장관은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예정이다.

2024. 12. 9.
국토교통부 대변인